



## 정보화 시대의 여성과 원자력

허 운 나

국회 의원 · 새천년민주당

### 머 리 말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허운나 의원입니다.

먼저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사단법인 설립 기념식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같은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여성 원자력 전문인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보니 앞으로 우리 나라 원자력계의 앞날이 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지는군요. 비록 그 숫자는 적지만 종합 과학 기술의 산실인 원자력 분야에서 본인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해 온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이 행사가 더욱 뜻깊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상임위 위원으로서 그동안 여성 과학자 지원 확대 방안과 원자력과 IT·BT·NT 분야와의

기술 융합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왔었습니다.

사실 원자력은 우리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도 폐기물 처분이나 안전성 문제에 있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국가 에너지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여러분 모두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보화 시대의 여성과 원자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 '지식 기반 사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업 사회의 '근대화', '산업화' 등의 용어가 불과 십 여년만에 '정보화'라는 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토지·노동·자본의 전통적 생산 요소의 효용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는 지식이 유일한 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과거 노동과 자원이 없는 나라는 발전하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앞으로는 지식 없는 국가는 발전이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의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이것이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여성의 특성은 감성과 이해심,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 평화 지향성, 정직, 성실성 등으로 요약됩니다.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는 대결과 투쟁이 아닌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의 특성이 요구되며 그것은 정치·사회뿐만 아니라 원자력 분야에서도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오늘 정보화 시대에 있어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미래 방향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할까 합니다.

### 정보화 시대의 여성

과거 증기 기관이 농업을 산업 사

회로 바꾸었듯, 정보 통신 혁명을 통해 산업 사회는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 부응하여 국가 사회 전반의 지식 정보화를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설정하고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세계적인 정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는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여성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국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1. 지식 정보 사회의 여성 활동 확대의 필요성

이러한 지식 정보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성 차별이 점차 감소되고, 여성 특유의 감성과 섬세함을 요구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학연·지연 등 인적 네트워크상에서 머물던 정보가 이제는 정보 네트워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정보

의 접근성이 증대되며,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정보 사회의 특징은 여성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증가시킬 것이고, 여성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동화로 인하여 고용이 축소될 것이며, 임시직의 확산,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 등의 경영 혁신 추세는 여성에 대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견제와 함께 기존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 사회의 질서와 논리가 지식 정보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게 바뀌고 사회 구성원의 의식도 이에 맞게 바뀐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선진국은 여성 인재를 많이 활용하는 국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점차 여성 인재를 활용한 지식·정보·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 고급 인력의 활용은 국가에게도, 또한 기업의 이익과 대학의 비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 2. 여성 정보화 현황

오늘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인력들이 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여성의 정보화 수준은 전체 인구의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며, 장애인·노인 등과 함께 정보화의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설비, 정보 이용, 정보화에 대한 관심 및 투자 등의 측면에서는 남성의 1/3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보화 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컴퓨터/컴퓨터 통신/인터넷 등 활용 측면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가정에서의 정보화는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가정 경제를 경영하고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3. 여성 인력 개발 정책의 현황과 한계

정보화가 되면 남녀의 차이가 중요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를 보는 관점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적 전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 통신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대부분의 업무를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획 분야보

다는 단순 그래픽 작업이나 애니메이션 작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형태만 바뀐 것이지 실제로는 60, 70년대의 단순 작업을 하던 여성들의 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 정보화를 위한 제약 조건이 산재되어 있으며, 정보화 경쟁력을 갖추어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을 제대로 양성 및 활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 인력 개발은 정부의 복지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 지대로 남아 있고, 취업을 하더라도 육아 문제 등 사회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80% 이상이 여성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공직 사회든 민간 분야든 여성들이 상위직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다는 현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우리 사회에서는 전문 영역을 개척한 고학력 여성들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채용상의 각종 성 차별적 장벽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과학 기술 연구 활동 조사 보고서 통계에 의하면 2000년 말 현재 연구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연구원은 국내 연구 인력

의 10.2%인 16,385명으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하였으며, 여성 과학자는 대학이 46.3%(7,583명), 기업이 44.8%(7,341명), 연구 기관이 8.9%(1,461명)으로 주로 대학과 기업에서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 출연(연) 여성 과학 기술 인력의 현황을 보면 2001년 11월 현재 21개 과학 기술계 정부 출연(연)의 정규직 연구원 5,575명 중 여성 연구원은 419명(7.5%)으로, 2000년의 366명(6.9%)에 비해 전체 인원 및 비율면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직급별로 보면 책임급이 1,972명 중 55명(2.8%), 선임급이 2,533명 중 197명(7.8%), 원급이 1,070명 중 167명(15.6%)으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연구원의 비율 여전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이공계 대학 여교수 현황을 보면 2001년 4월 현재 162개 4년제 대학의 이공계 교수 총 13,123명 중 여교수는 5.5%인 727명으로 전년도의 680명(5.3%)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학 분야에서만 약간의 비율이 증가했을 뿐 다른 분야에서는 여교수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과학 기술 분야 전문직 진출이 지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화·정보화 사회로 환경이 바뀌면 물론 여성들이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저절로 올라간다고 희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① 여성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성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② 여성 고급 인력의 사회 진출과 고용 확대를 위한 제반 지원 방안들이 심층 검토되어야 하며 ③ 여성이 단순 업무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핵심 분야에서 브레인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④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 원자력 분야의 여성 신지식인

21세기 원자력산업도 새로운 정보화 사회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수행되어 온 설계·관리 업무들이 이제는 IT·BT·NT 등 핵심 기술과의 기술 융합 쪽으로 상당 부분 이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자력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춘 우수 인력의 양성·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

시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기술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역할 및 중요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1. 여성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

원자력 기술 분야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보기 위해 여성의 진출 현황을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2001년 말 원자력 산업의 총 전문 인력 8,183명 중 여성 전문 인력은 152명(2%)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2001년도 과학 기술 연구 활동 조사보고에 의한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인력 중 여성 인력 10.2%(16,385명)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의 경우 2001년 11월 현재 정규직 여성 연구원은 7.5%(419명) 중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연구원은 0.5%(30명)으로 상대적으로 여성 연구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연 기관 여성 연구원의 직급별로 현황과 비교해 보면 책임급 2.8%(55명), 선임급 7.8%(197명), 원급 15.6%(167명)에 비해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는 책임급 0.5%(2명), 선임급 5.4%(23명), 원급 16.1%(5명)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연구원의 비율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여성 전문

인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원자력 분야에 여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이공계 교육 과정을 밟도록 유인하는 것과 유입된 여성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대학들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여학생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과 사회 단체에서도 여성 과학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경력 개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에서는 이런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성의 과학 기술계 진출을 촉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여성의 원자력 분야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원자력 전문 교육 과정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프로그램과 지속적·안정적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출산과 육아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여성 원자력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 2.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

원자력 분야에 있어 여성 전문 인력이 적은 것은 원자력 분야가 공학 적 응용 분야로서 여성의 진출이 어렵다는 사회적 고정 관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여성의 특성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 있고 유연하며, 협력을 잘하는 여성 원자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적극 활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위험하며 딱딱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원자력계가 안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과의 정서적인 친밀감도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3. 전문성 배양과 국제 네트워크 형성

기술·지식 집약적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대함과 동시에 기존 산업의 지식화가 진행되고 있고, 수요의 고급화·다양화에 따라 다 품종 소량 생산, 1:1 맞춤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바 이것은 원자력 분야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로써 창조력과 사고력을 갖춘 여성 전문인의 수요가 늘어 고용 구조가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및 기술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겁니다.

특히 모든 지식과 정보가 네트워킹을 통해 창출되고 이동하므로 여성 원자력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여성 원자력 전문가들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여성 원자력 전문가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의 원활한 유통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까 합니다. 각처에 산재한 정보의 존재를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광범위한 여성 전문가들에게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국내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과 정보 제공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성 원자력 전문가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정보량이 증가하는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활한 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보 네트워크의 확립

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프라인상에서의 연수, 교류 등의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온·오프라인상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기존에 구축된 여성 관련 DB를 연계하여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외 원자력 분야의 여성들 및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사이버 포럼 등을 운영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이는 국내 및 국제 사회에서 여성 원자력 전문가 및 협회의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맺음말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는 우리 여성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남과 협력하는 유연한 자세와 창조적 아이디어, 여성의 섬세함은 오히려 남성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자력계를 포함한 과학 기술계 전반에 있어 우수 여성 인력 활용이 저조한 현실이며,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박호군 장관께서도 계시지만, 현재 정부가 여성 과학자 육성 및 활용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큰 관심과 힘을 실

어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부탁드립니다.

이곳 협회의 영문명이 WIN-Korea 이더군요. 저도 여성 정보화를 위한 사단법인 회장으로 있는데 이름이 Women Information Network 21, 약자로 WIN21입니다. 같은 WIN 식구라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여성들이 사회의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을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녀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일 겁니다. 모두가 WIN-WIN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WIN-Korea가 여성 과학인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문 여성 육성 및 발굴의 메카로서 자리잡길 바라며, 원자력 강국으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법인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홍성운 회장 및 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밝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두서없는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